

세계화 시대의 한글

최규용 (교수, 메릴랜드대학 화학생명공학과)



금년은 훈민정음이 반포된지 563 년째 되는 해이다. 실제로 훈민정음은 세종 25 년인 1443 년에 창제되었으나 3 년간의 시범사용기간, 즉 테스트 기간을 거쳐 1446 년 음력 9 월 상순에 공식적으로 반포되었다.

우리 모든 한국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이지만 한글은 독창성과 과학성을 지닌 문자체계로서 세계에서 유래를 볼 수 없이 정확한 이론적 근거하에서 만들어진 표음 문자이다. 그러나 한글이 세계 문화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점은 문자가 없어 한자를 써야하고 또 우리말을 표기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민초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한글 창제의 거룩한 정신일 것이다.

또한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달리 언제 어떻게 만들어 졌으며 창제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이 확실히 알려진 유일무이한 글자이다. 한글은 창제된 당시의 문자의 모습과 체계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어 초기의 어떤 형태로 부터 오랜 세월을 두고 조금씩 진화되어온 세계의 대부분의 다른 문자와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게다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수백년 후에 컴퓨터가 나올것을 예견이나 하였는지 한글은 컴퓨터와 궁합이 척척 맞도록 만들어 훈민정음 원본에 쓰여져 있는대로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변화무쌍한 글자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참으로 멋진 문자인 것이다.

우리 민족이 20 세기 후반 이후 전세계가 깜짝 놀라도록 빠른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이루어 세계사에서 무명의 변방국가로 부터 일약 세계 10 위의 경제대국이 된것은 물론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근면성, 생존력등이 크게 작용되었겠지만 한글이라는 우수한 문자를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문자가 있었기에 문맹률 제로를 일찌감치 달성하여 지적으로 전국민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필자 또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나 한글로 된 과학 기술 문서를 읽고 쓸 때와 영어로 된 과학 기술 문서를 읽고 쓸때의 효율에서 크게 차이가 남을 느낀다. 한글은 영어에 비하여 간결하고 빠르게 그 뜻을 전달할 수 있어 지식의 전달에 엄청난 효율을 가지고 있다. 훈민정음의 끝에 집현전 학자의 대표인 정인지가 쓴 글을 보면 한글은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아침 한나절이면 다 깨우칠 수 있고 우둔한 사람이라도 며칠만 배우면 깨우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되어 있다고 쓰여져 있다. 정인지의 이 말은 필자가 약 10 년전 서울에 함께 갔던 미국인 동료 교수에게 약 20 분간 간단히 자음과 모음을 설명해 주었더니 금방 서울 시내의 간판 글씨를 죄다 줄줄 읽어 내었던 실제 경험으로 부터 조금도 과장이 없는 진실임을 확인한 바 있다. 영어를 20 분간만 배우고 처음 보는 단어도 줄줄 읽을 수 있다면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의 인생은 얼마나 편할 것인가!

또한 한글은 글꼴이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어 영어 다음으로 많은 종류의 멋진 글꼴들이 컴퓨터를 통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중국인, 일본인, 아랍인들이 부러워 죽을 지경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모국에서는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컴퓨터가 한글을 이해하여 인터넷과 컴퓨터의 기본 문자체제로 자리잡는 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이미 실용화 되고 있다.

전에는 우리 2 세들이 어떻게 하면 미국 사회에 동화되어 주류사회로 진출할 수 있을까가 주된 관심사였고 한글은 그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 2 세들은 영어도 잘하고 한글도 잘하는 것이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플러스 알파의 역량임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모르는 2 세가 있다면 어른 1 세들이 이를 깨우쳐 주어야 하고 어린 자녀들을 반드시 한글학교에 보내야 한다.

아시아와 미국에서의 한류 바람이라는 용어가 가끔은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한국의 정보통신과학과 기술이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고 또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처럼 우리 한민족이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원동력이 바로 564 년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여 창제한 한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원래는 28 자로 창제되어 자연의 소리를 더욱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24 자만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한글의 역량을 축소시킨 것은 우리 후손들의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한글날을 맞아 얼마전 훈민정음 원본의 영인본을 구입하여 읽어보니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학자들의 그 위대함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들 잃어버린 네 글자를 다시 부활시켜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대하며 한글 창제 564 년을 맞아 조상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